

2014

1 + 2 + 3

좋은 사람 좋은 세상

NATIONAL CANCER CENT

國 癌 中

ONAL DEL CAN

CE

CHESKII

DE CAN

CoverStory

이진수 국립암센터 원장

세계 최고의 암센터 꿈꾸는
이진수 원장의
암 '걱정' 없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발행인면지

HDI 세미나

Issue&Seminar1

한려협력특별세미나

Issue&Seminar2

오영호 KOTRA 사장

Hot&Issue1

삼성 홀리스틱 마케팅포럼

Hot&Issue2

CEO스피치 과정 10기

2013 HDI 송년의 밤

Spero Spera - 꿈꾸는 한 희망은 있다

회원&연구원소식

2013 교육운영현황

김병일칼럼

한국과학진흥원 원장

표지인물 이진수 국립암센터 원장 사진 오경근 원장

등록 제121호(비매물) 등록번호 서울 마 03200 발행일 2014년 1월 6일
발행인 장만기 편집 정용달 TEL 02-2203-3500(내) FAX 02-2203-1974
주소 135-898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536 동성빌딩 2층(www.hdi.or.kr)



‘카본’, ‘세라믹단열재’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모간이 있습니다.



Thermal Ceramics

세계최초 바이오슬루블 웰빙 단열재(친환경)
Superwool, 세라믹화이버, 세라믹보드,
파이로블럭 모듈 외



Engineered Carbon

첨단 카본분야의 리더
초고순도 Glassy Carbon 함침 및 코팅,
Graphite 제품, Carbon Felt 외



Electrical Carbon

카본이라면 ‘가람카본’
산업용 카본브러쉬, 집전자용 카본, 슬립링 외



Graphite 열교환기

세계적인 흑연 열교환기
Graphite Shell & Tube Heat Exchangers 외



'생명의 자본'과 '인간의 자본'

<생명이 자본이다> 80의 지성 이어령의 신작이다. 한국의 지성, 아니 세계의 지성 이어령이 80의 나이에 깨닫고 마지막으로 선택한 말이 '생명'과 '사랑'이다. 생명과 사랑은 분리할 수 없는 동의어(同義語)일지 모른다. 그것은 '생명의 비밀'은 사랑에, '사랑의 비밀'은 생명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이어령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꽤 오랜 세월 이런 저런 관계를 맺고 살아왔다. 그래서 그의 신작이 나올 때마다 인간개발연구원이 주최하는 세미나에 꼭 초청해서 강의를 들어왔다. 80회 생일을 맞아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후원한 출판기념회에 800여 명의 축하객과 함께 참석하기도 했지만, 이번에도 꼭 초청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동시에 필자도 80회 생일을 맞아 이어령의 <생명이 자본이다>와 같은 형식의 '인간이 자본이다'를 써보기로 결심했다. 3년 후의 계획이다. '생명의 근원'에 대하여, '생명의 비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기독교적인 종교 배경을 가진 필자는 우주를 창조하고 섭리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생각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 저 광대한 '우주'와 변함없이 운행되고 있는 '자연'의 중심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의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깨달음과 신앙을 갖게 된 것이 80의 나이를 바라보는 필자가 얻은 살아옴의 결실이다.

과학자들이 밝힌 우주의 역사는 137억년이고, 1000억 개의 별로 구성된 은하계 중에서 헤아릴 수 없는 별 중 하나인 지구의 역사는 47억년, 그리고 지구에서 탄생한 생명의 역사가 36억년이라고 한다.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후에 인간의 출현이 가능해졌으니, 인간의 역사는 비교적 짧다. 창조주는 창조의 최후작인 '인간'을 만들기 전에 먼저 '지구'라는 별을 창조하고 그 속에 생명을 창조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서에 의하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전능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다. 생명의 근원이 창조주라 할 때, 생명의 진리, 사랑, 거룩함, 전지전능함을 '본질' 또는 '특성'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생명은 진실하다', '생명은 사랑이다', '생명은 거룩하고 신성하다', '생명은 전지전능하고 영원하다'라

고 정의할 수 있다.

<생명이 자본이다>에서 이어령이 해박하게 밝히고 설명하고 있는 것에 필자는 공감하고 있다. 과학자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라고 소리쳤던 순수한 과학적 발견에 대한 환희와 마찬가지로 이어령이 '생명이 자본'이라는 깨달음을 창작으로 내놓은 것이 <생명이 자본이다>이다.

50여 년 전, 전쟁과 피난살이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무렵, 단칸 셋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던 이어령은 그 긴 겨울밤 연탄불이 꺼져 얼어버린 금붕어를 아내의 찰나적 지혜로 따뜻한 물을 부어 되살려냈던 놀라운 발견을 <생명이 자본이다>라는 책의 실마리로 밝히고 있다.

"아르키메데스는 목욕탕에서 부력의 원리를 찾았고,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한다. 모두가 지어낸 전설이라고 하면서도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싶어한다. 진부(眞否)의 관계없이 그런 이야기가 몇 백 년, 몇 천 년을 두고 전해오는 까닭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항상 생각의 시작, 유레카의 놀라움이 움트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명이 자본이다> 첫 장 '금붕어 유레카'에 적고 있다.

생명은 죽지 않는다는 '생명영원설'과 '인체냉동기술'의 해설과 동면(冬眠) 기적 송장개구리 이야기, 그리고 영하 50도 극한의 추위에서 황제 펭귄의 부화가 보여준 부성애의 생명사랑 이야기는 너무나 감동적이다. '생명의 비밀'은 바로 처절한 부화과정에서 보여준 사랑에 있다는 신앙을 갖게 해준다.

왜 '인간개발'인가, 인간생명의 비밀은 사랑에 있다고 믿는다. 인간의 비밀을 캐내려면 생명의 비밀을 알아야 하고, 생명의 비밀은 사랑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유레카! 인류의 미래는 인간에게 달려있고, 인간의 미래는 교육(인간개발)에 달려있다. '인간이 자본이다'라는 책을 저술함에 있어 TPT(Total People Technology, 참사람을 살려내는 지혜의 인간학)를 키워드로 하고, Better People Better World를 슬로건으로 하여 본격적인 연구와 준비로 책을 저술해 인간개발연구원 창립 40주년을 맞이하고자 하는 것이 2014년 갑오년 청마의 해 필자의 큰 계획이며 과제이다. ■■■

January

**신년하례회 / 제1811회 HDI경영자연구회
서울은 지속가능한 내일에 투자합니다**

1월 9일(목) 07:00~09:00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2011년 10월 27일, 서울시장에 취임한 박원순 시장의 첫 업무는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지출' 서류에 서명하는 것이었다. 이후로 무상급식, 서울 시립대 반값등록금, 시 산하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핵심 공약 사항들을 착실히 이행해왔다. 특히 국내 최초로 '서울시민 복지기준'을 마련해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한 대목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돈이다. 무상보육비, 서울시민 복지기준 실현을 위한 예산 마련이 시급한데, 현재 서울시 재정사황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또한 임대주택 8만호+α 공급이라는 박 시장의 주택정책은 '사람 중심의 서울'을 위한 그의 철학이 담겨있는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19조에 육박하는 서울시 부채를 감안하면 녹록치 않은 일로 보인다. 그래도 박 시장은 '시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은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2014년 시정계획을 세우고 있다.

2014년 신년하례회를 겸한 첫 연구회에서는 투명한 정보공개, SNS행정,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정책토론회와 현장시찰장 운영 등으로 서울시장의 새로운 상을 제시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을 모시고, 지난 2년간 서울의 변화와 2014년 새롭게 펼쳐질 서울시정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대 입학 | 단국대 사학과 졸업 | 영국 런던정경대 국제법 디플로머 과정 수료 |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 대구 지검 검사 | 참여연대 사무처장 |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 아름다운가게 상임이사 |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상훈> 제10회 여성운동상, 제15회 심산상, 제10회 만해대상, 필리핀 막사이사이상, 제21회 단재상, 제15회 불교인권상 외

<저서> 희망을 심다, 원수씨를 빌려드립니다, 박원순의 아름다운 가치사전, 세상을 바꾸는 천개의 직업, 희망을 건다 박원순의 백두대간 종주기 외

**제8회 CEO지혜산책
공유가치 창출과 자본주의 5.0**

1월 14일(화) 07:00~09:00
서울컨벤션 일루미나홀(한국도심공항 3층)

2010년 매경이코노미 선정 한국경영의 구루 1위로 선정됐던 조동성 교수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경영전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보스턴컨설팅그룹과 걸프오일을 거쳐 1978년부터 서울대에서 교수로 활동하며 하버드, 듀크, 동경대 등 세계적인 명문대학들의 초청교수로 활동 중에 있다.

조 교수는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을 살펴볼 때, 자본주의 1.0에서부터 2.0, 3.0을 거쳐 따뜻한 자본주의의 4.0까지 왔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제는 자본주의 5.0시대로 2011년 마이클 포터 교수가 하버드 비즈니스리뷰에서 이야기한 CSV (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창출)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이것을 우리사회가 고려해봐야 할 가치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2014년 CEO지혜산책 첫 강연은 한국경영학계의 대표적인 학자로 경영전략의 대가로 평가받고 있는 조동성 서울대 교수의 강연으로 시대를 읽는 경영의 혜안을 넓혀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조동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 美 하버드대 경영학 박사 | 美 하버드대, 듀크대 초청교수 | 日 동경대 초빙교수 | 산업정책연구원 원장 | 서울대 교수, 국제지역원장, 경영대학장 | 한국경영학회 회장 | 정부혁신관리위원회 위원장 |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 공동의장 | 지속경영학회 회장

<저서> M경영, 디자인혁명, 잠미와 짚레, 나를 넘어 세계를 경영하라 외

**제1회 CEO인문향연
조정래의 정글만리 - 절대 알 수 없는 중국의 진실**

1월 23일(목) 18:00~21:00
서울컨벤션 일루미나홀(한국도심공항 3층)

'14억 인구에 14억 가지의 일이 일어나는 나라 중국' 부와 성공을 좇아 글로벌 비즈니스맨들이 중국으로 몰려들고 있다. '세계의 공장'으로 치부되던 나라가 '세계의 시장'으로 변모해 경제 강대국으로 우뚝 선 현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수천 년을 함께해 온 한반도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시대와 역사를 가로지르는 대하소설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등으로 우리나라의 근현대 비극을 예리하게 그려왔던 조정래 작가가 신작 장편소설 <정글만리>와 함께 다시 돌아왔다. 이번 작품은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어 G2로 발돋움한 중국의 성장 속에 한국, 중국, 일본, 미국, 프랑스 등 다섯 나라 비즈니스맨들의 욕망과 암투가 다종다양한 중국식 자본주의를 배경으로 흥미진진하게 전개된다.

인문학 강자와 문화예술 공연을 접목해 탄생한 'CEO인문향연' 개강 강연에서는 조정래 작가를 모시고, 급속한 개발로 인한 공해, 중국 특유의 '런 타이퓀(人太多)' 이면에서 벌어지는 인명경시, 먹고살기 위해 고향을 버리고 대도시 빈민으로 전락한 농민공들의 모습을 통해 중국의 과속 성장의 폐해와 인간 존재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조정래
작가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 소설문에 발행인 | 한국문학 주간 |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석좌교수 | 제8회 EBS 국제다큐영화제 자문위원 |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 명예 홍보대사 | 2013춘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대사

<상훈> 현대문학상, 대한민국문학상, 동리상, 만해대상 외
<저서>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정글만리 외

February

창립39주년 기념 / 제1812회 HDI경영자연구회

한국의 인력성장과 인간개발

2월 6일(목) 07:00~09:00

롯데호텔(소공동) 2층 크리스탈볼룸

과거에는 좋은 상품 만들기에 온 힘을 쏟던 기업들이 지금은 '인재'를 확보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좋은 상품도 결국 A급 인재가 만들기 때문이다. 우수한 인재의 발굴과 양성은 기업의 성장사와 무관하지 않다.

'의인물용, 용인물의(疑人勿用, 用人勿疑)'의 심이 가거든 사람을 고용하지 말라. 의심하면서 사람을 부리면 그 사람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 그리고 고용된 사람도 결코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 사람을 채용할 때는 신중을 기하라. 그리고 일단 채용했으면 대담하게 일을 맡겨라.' 삼성의 전통이 된 인재관리 원칙은 창업주인 호암 이병철 회장의 경영철학을 담아 삼성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리고 삼성은 이병철 회장의 인재제일과 사회공익 정신을 기리기 위해 1990년부터 '호암상'을 제정해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사들을 현창하고 있으며, 1997년에는 호암재단을 설립해 호암상 운영 및 사회공익사업을 펼치고 있다.

창립 39주년 기념연구회에서는 호암재단 설립부터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현재 이사장을 초빙해 호암상을 통해 바라보는 한국의 인재상과 역사를 살펴보고 인간개발연구원이 추구하는 '인간개발'의 의미와 향후 과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제9회 CEO지혜산책

Hidden Champion '마이다스아이티'의 경영세계

2월 11일(화) 07:00~09:00

서울컨벤션 갤러리시홀(한국도심공항 3층)

창립 7년 만에 세계 건설·구조설계 소프트웨어 시장 1위 업체라는 타이틀과 독특한 경영철학으로 세간의이목을 집중시킨 마이다스아이티. 그 중심에는 '사람'을 경영의 핵심으로 삼는 이형우 대표가 있다.

두바이 버즈 칼리파를 비롯한 세계 굴지의 건축물 등 2002년 이후 대한민국 건설구조물의 99% 이상이 마이다스아이티의 프로그램으로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마이다스아이티는 '국산소프트웨어는 국내용'이라는 편견을 불식시키며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수출로 채울 만큼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신입사원 팀장, 부사장까지 자동진급, 5성급호텔 3식 제공 등의 경영방식은 사람 중심의 자연주의 인본사상을 바탕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 경영의 해답을 찾는 이대표의 경영철학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세계 1위가 된 비결로 '당신은 사업을 했을지 몰라도 우리는 사람을 키웠다'고 답하는 이대표. 제9회 CEO지혜산책에서는 우수한 기술력과 복지, 빠른 성장속도로 유명세를 타게 된 마이다스아이티의 경영철학을 통해 글로벌 리더 기업으로 성장하는 비결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제2회 CEO인문향연

사기(史記)로 통찰하는 인간의 가치

2월 27일(목) 18:00~21:00

서울컨벤션 갤러리시홀(한국도심공항 3층)

사기(史記)는 유일무이하게 체제와 내용이 완벽하게 결합된 통사다. 사미천은 친구 임안에게 보낸 편지에서 '천하에 잊힌 옛 일들을 모조리 망라하고 그것을 비교 검토하여 성공과 실패, 흥기와 파국의 이치를 고증하고 싶었다'고 했다. 이것이 바로 '사기'를 저술하게 된 출발점이다. 여기에 앞시대의 각종 기록과 역사 편찬법들을 종합적으로 흡수하고 활용하여 130권 52만 6,500자에 이르는 방대한 역사책을 창조했다.

사기는 정의와 기개로 어떤 불의에도 굽히지 않고 행동한 사람들, 시세를 잘 살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사상을 드러낸 사람들, 천하에 공명을 떨친 인물들을 골라 열전을 구성한 것이다. 요컨대 특정한 시대에 나름의 역사적 역할을 수행한 인물들에 대한 기록으로서 열전을 남긴 것이다. 역사라는 시공간 속에서 한 인간의 행동을 추적하되, 그 행동이 시대의 요구와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얼마나 주동적이고 주체적이었나에 시종 초점을 맞추어 전개한 대하 역사 드라마라 할 수 있다.

인문향연 두 번째 강연에서는 사기(史記)전문가 김영수 박사를 모시고, 죽음보다 치욕스러운 공형을 자청하고 발분하여 사기를 완성한 역사가 사마천의 기구한 삶과 인간 승리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현재
호암재단 이사장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 서울대 경제학 박사 | 서울대 교수, 총장, 명예교수 | 한국경제학회 회장 | 제20대 국무총리 | 국민대학교 학교법인 이사장 | 대한민국학술원 회장 |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저서> 경제발전론, 자본시장과 주식분산, 한국경제론 외



이형우
마이다스아이티 대표

부산대 기계설계학과 졸업 | 대우중공업 조선팀문 플랜트 설계부 | 포스코건설 MIDAS 센터장 | 성남상공회의소 13, 14대 위원 | 한국공학한림원 건설환경공학분과 위원 | 부산대 기계공학부 겸임교수



김영수
史記전문가

한국정신문화연구원대학원 석·박사 | 영산 원불교 대학교 교수 | 중국 소진학회 이사 | 중국 섬서성 한성시 사마천 학회 정회원 | 사마천 장학회 설립

<상훈> 과학기술처 장관상
<저서> 1일1구, 사기의 리더십, 사마천 인간의 길을 묻다 외

March

제1813회 HDI경영자연구회

2014년 대한민국의 국가전략 - 과제와 방향

3월 6일(목) 07:00~09:00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우리는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를 불렀으나 그렇게 분단으로 70년의 시간이 흘러간 지금은 통일에 대해 '그림의 떡'처럼 생각하는 분위기다. 장성택 처형 등 북한의 권력투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분단평화가 대북정책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최종목표는 통일평화이다.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는 통일의 수단이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사회 전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통일은 꼭 필요하다.

박세일 이사장이 제안하는 총체적 통일론 '선진 통일전략'은 한국 사회의 통일 역사 필연성과 현실적 방법론을 이야기하면서 통일의 꿈을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통일은 시간이 되면 저절로 오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의 땀과 눈물과 피로써 만들어진 노력의 산물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박세일 이사장을 초빙해 역사적 시각에서 분단의 원인과 그로 인해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부작용을 진단하고 통일을 위한 올바른 전략, 그리고 구체적 준비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한편, 꿈의 통일에 한 발 가까이 다가갈 창조적 통일론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제10회 CEO지혜산책

기업의 성과창출과 경영자의 역할

3월 11일(화) 07:00~09:00

서울컨벤션 갤러리서울(한국도심공항 3층)

국내 제1의 성과창출 전문가로 알려진 류량도 대표는 경영학 박사이자 경영 컨설턴트로 20여 년 동안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조직과 개인의 성과 향상을 주도해왔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인본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명쾌한 시장논리를 곁들여 제시하는 촌철살인의 강의와 컨설팅은 조직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개인의 성장 측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는 해법으로 이미 유명하다.

자타공인 성과창출 전문가인 류 대표는 날카로운 시각과 새로운 발상을 바탕으로 조직이 탁월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객 접점의 구성원 각자가 완전한 성과주체가 되어 '자기주도 경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그의 이런 생생한 경험이 녹아든 수많은 저서들은 많은 독자들로부터 오랫동안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3월에 열리는 제10회 CEO지혜산책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리더와 구성원들이 진정한 성과관리 전문가가 되기를 희망하는 류량도 대표를 초빙해 그동안의 경험과 사례를 통해 기업의 성과창출과 경영자의 역할에 대한 노하우를 알아보고, 이를 습득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갖는다.

제3회 CEO인문향연

캔버스 위의 리더십

3월 27일(목) 18:00~21:00

서울컨벤션 갤러리서울(한국도심공항 3층)

서양화는 휴먼 드라마를 가장 소중한 주제로 삼아왔다. 영웅과 왕후, 천재, 선인, 악인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서양화들을 보노라면 삶의 의미와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그 가운데 뛰어난 리더들의 삶의 자취를 담은 그림들과 훌륭한 리더십의 가치들을 표현한 그림들을 보노라면 단순히 머리로는 이해하는 리더와 리더십을 넘어 가슴으로 그 모든 것을 보듬어 안게 된다.

미술작품을 통해 우리는 서양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리더들에 대해 품었던 가장 이상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또렷이 살펴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회화 장르는 역사화(History Painting)이다. 역사화는 보편적인 가치와 교훈, 특별히 영웅적인 모범이나 모든 사람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덕을 표현한 그림 일체를 일컫는 용어다. 그림의 사건과 인물은 실제의 사건이나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 삶의 모범이 될 만한 숭고한 내용을 표현한 것이라면, 이런 주제의 그림도 역사화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림이 역사가 시작된 이래 높이 평가받아온 덕의 전형, 혹은 교훈의 전형을 담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감동적으로 전달해 주느냐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사실이나 아니냐가 아닌 것이다.

인문향연 3월 세미나에서는 이주헌 미술평론가를 모시고 역사화의 특성에 기초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와 리더십의 참모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서울대 법학과 졸업 | 美 코넬대 경제학 석·박사 | 서울대 법과대 교수, 명예교수 |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 비서관, 사회복지수석비서관 | 경실련 정책위의장 | 제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 정책위의장

<상훈> 한국경제학회 회장, 황조근정훈장, 제10회 4.19 문화상, 도산교육상

<저서> 대한민국 선진화전략, 창조적 세계화론, 박세일의 삶과 세상 이야기 이 나라에 국혼은 있는가, 21세기 한반도의 꿈 선진통일전략 외



류량도

더 퍼포먼스 대표

연세대 사회학과 졸업 | 성신여대 경영학 박사 | SK건설 인사관리팀 | 삼보산업 경영고문 | 한미글로벌 경영고문 | 전경련 국제경영원 HR분야 자문교수 | 수원축협 사외이사

<저서> 하이퍼포머, 일을 했으면 성과를 내라, 제대로 시켜라, 우리가 꿈꾸는 회사, 첫 번째 질문, 나는 성과로 말한다 외



이주헌

미술평론가

홍익대 서양학과 졸업 | 동아일보 출판국 기자 | 한겨레 신문 문화부 미술담당 기자 | 가나아트 편집장 | 학교재 아트 스페이스 서울 관장 | 양현재단 이사 | 서울미술관 관장

<저서> 서양화 자신있게 보기, 지식의 미술관 외

CEO MEMBERSHIP SEMINAR

'테마별 3색 세미나'

-  No.1 HDI경영자연구회
-  No.2 CEO지혜산책
-  No.3 CEO인문향연

No.1 HDI경영자연구회

대한민국 각계 리더와 경영자간 대화의 장, 사회이슈세미나
매월 1주 목요일 07:00 / 연12회 개최
소공동 롯데호텔

No.2 CEO지혜산책

기업 경영의 핵심! 지혜 공유의 장, 경영세미나
매월 2주 화요일 07:00 / 연12회 개최
삼성동 공항터미널 서울컨벤션

No.3 CEO인문향연

경영철학을 완성하는 CEO의 마음공부, 인문세미나
매월 4주 목요일 18:00 / 연12회 개최
삼성동 공항터미널 서울컨벤션



“

CEO가 배움을 멈추는 순간
그 기업도 성장을 멈추게 된다.
남보다 앞설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길은 **배움**이다.

”



제1805회 HDI경영자연구회&한러협력특별세미나

푸틴 대통령 방한 의미와 한러관계 전망



▲ 브누코프 대사

[발제1]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

2013년 9월, 러시아와 한국은 수교 23주년을 맞았다. 이에 앞서 양국의 우호 협력관계 역사는 150년 이상 되었다. 러시아는 19세기 말 한반도에 가장 먼저 들어온 국가

중 하나였다. 러한 양국간 서명된 최초의 문서는 1884년 조러수호통상조약이다. 1896년 2월 구한말 고종황제는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해 1년 이상 체류하기도 했다. 일본 식민지 이후 러시아 극동지역은 수백 명의 항일투사들에게 제2의 고향이 되었다. 그리고 150년 전에 한국인 수천 명이 전쟁과 일본 식민지를 피해 자발적으로 러시아로 이주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주하고려인 세대는 현재 러시아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의 발전과 러한관계 강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러한수교 23년, 양국 우호관계 점진적 발전 거듭

러한 양국은 수교 이래 지난 23년간 25회의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지난 9월 박근혜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당시 푸틴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서 양국은 양국의 우호관계를 우선시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신뢰적 파트너관계가 한층 더 증진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한해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푸틴 대통령의 방한은 2개월 만의 양국 정상회담이며, 이는 양국관계가 열정적으로 발전해간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양국의 교류 규모는 2011년 250억 달러를 넘어섰고, 경제위기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교역확대는 물론 우주개발, 원자력에너지, 정보기술, 의료 및 바이오기술을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를 단순히 한국에 자원을 공급하는 국가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미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적지 않은 규모의 최첨단기술 상품을 수출하고 있는데, 한국의 민간 헬기 절반 이상은 러시아산이며, 한국 원자력 수요의 3분의 1 이상을 러시아가 공급하고 있다.

한국과의 파트너십과 협력은 러시아에 있어 독자적인 가치를 지닌다. 우선 양국간 정치경제 협력 추진과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 면에서 그렇다. 이 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군사적 위협 제거라는 문제를 공동의 관심사로 가지고 있다. 실제 한반도는 작은 불꽃에서 전면적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기로에 서있다.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 평화안보 위한 열쇠는 6자회담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를 외교 정치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확신한다. 핵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에 있어 필요한 결심을 내릴 수 있는 가장 적당한 메커니즘이 바로 6자회담이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통일 이후 평화롭고 민주적이며, 러시아에 대해 친선적인 태도를 갖고, 인구가 7천만 명이 될 한반도는 우리의 믿음직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과거에 이미 한국, 북한, 러시아를 잇는 대규모 삼각프로젝트를 제안한 바 있다. TSR 연결사업과 동북아 단일 에너지 체제 및 파이프라인 구축사업 등이다. 이를 통해 한반도와 동시베리아, 러시아 극동지역이 연결되는 것이다.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3개국에게도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고, 한국인들의 미래와 동북아시아지역 평화와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러시아와 한국은 6자회담 당사자국이다. 이런 측면에서 양국의 입장이 유사

하거나 완전히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는 6자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모든 국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 및 안보체제 수립에 관한 기본원칙을 협의해나가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해 나가는 동북아 평화 및 협력 이니셔티브와 아주 비슷하다. 그런 점에서 다음 주 개최될 푸틴 대통령의 공식 방한은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것으로 확신한다.



▲ 이운호 전 대사

발제2

이운호 前 주 러시아 대사

한러관계는 지난 23년 동안 장족의 발전을 거듭했지만 잠재력에 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쳐서 지난 23년 동안 교역량은 110배 증가했고, 양국 국민의 매년 왕래 숫자가 13만 명에 이른다. 지난 9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한러 정상 회담을 가졌는데, 그때 양국의 신뢰관계를 더욱 증대시키자는데 합의했고, 신뢰에 기반한 새로운 관계를 발전시키자는 의지를 확인했다.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한은 두 달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양국 정상회담은 이러한 의지를 확인하고 실천하기 위한 제 일보가 될 것이다.

수교 23년, 무한한 발전 잠재력 갖춘 한러관계

한국과 러시아는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애매 모호한 외교적 용어이다. 그 안에 무엇을 담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앞으로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가 어떻게 구체화되고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이다. 이런 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커다란 발걸음이 푸틴 대통령의 방한이다.

한러 양국은 유례없이 활발하고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약요건도 분명히 있다. 상대에 대한 인식이 낮고 국민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른다.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가치나 체제, 행동양식의 차이도 극복해야 한다. 또한 국제정치역학 구조상의 제약이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의 외교정책, 그리고 각국의 한반도 정책, 남북한의 대외정책 등이 큰 걸림돌이다.

하지만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극복하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장을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양국의 국익을 위해서 중요하다.

북한 핵문제, 한반도 평화 정착 및 통일, 그리고 동북아에서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우리는 러시아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러시아는 경제협력에 있어 유익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에너지, 자원, 식량공급, 새로운 물류기지, 새로운 투자처 및 상품판매 시장, 그리고 미래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술협력 분야

에서 러시아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

윈윈할 수 있는 맞춤형 협력 강화해야

러시아 역시 우리나라를 필요로 한다. 러시아는 극동지역의 안정적인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해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 또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극동 바이칼 개발을 위한 경제파트너로서의 한국의 가치를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 철도, 가스관, 전력망 연결이나 러시아의 낙후한 제조업 기반 구축 분야에서도 한국은 좋은 경제파트너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유라시아국가로서 동북아 내에서 러시아의 존재감을 유지해나가는 데 한국이 필요하고, 아태지역 진출 파트너로서의 협력 가능성도 러시아로서는 중요한 사항이다. 결국 한러관계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협력파트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양국은 서로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러시아는 경제현대화를 아주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극동 바이칼 개발은 러시아의 5대 정책과제 중 하나이다. 상호 호혜적 협력 분야에서 성공 사례를 축적함으로써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국간 경제공동 위원회 및 한러대화를 보다 활성화하고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또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말만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산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테스크포스를 결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스, 철도, 전력망 연결사업의 적극적 추진, 여타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안보적, 산업적 측면에서 중요하다.

정치 안보 분야에서 러시아가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주리라 기대한다. 문화홍보 등의 분야에서 체계적인 인적교류, 문화교류, 언론홍보 등을 통해 양 국민간 심리적, 지리적 거리감 완화와 상호 우애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한이 잠재력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는, 그리고 상호 신뢰기반을 공고히 하는 첫 걸음이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 이서향 교수

발제3

"북극해로 개통과 세계 해운·자원산업 전망"

이서향 단국대 초빙교수

새로운 북극의 부상은 북극의 얼음이 녹는 환경 변화로 인해 북극의 이용 및 자원개발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많은 정치학자들이 북극을 두고 21세기 강대국들의 거대 게임이 벌어지는 각축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북극의 부상과 항로 및 자원개발 전망

북극을 두고 벌어지는 세계적인 현안 및 주요 의제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 항로이용의 문제다. 북극 항로는 캐나다 쪽으로 가는 북서항로와 러시아 연안을 따라 올라가는 북동항로 또는 북극해 항로 두 가지가 있다. 북극해 항로는 수에즈운하를 이용할 때보다 약 8,000킬로미터, 7~10일 정도 단축되고, 북서항로는 파나마운하를 이용할 때보다 4,200킬로미터, 5~7일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북극해 항로는 하절기에만 국한되는 제한성이 있다. 연안국에 의한 통과수수료, 열악한 하부시설로 인한 해양오염이나 미비한 수로문제, 배가 좌초됐을 때 재난구조 탐색 능력이 거의 없고, 심해 항구도 부족하다. 사고 시 피난시설이 없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된다.

둘째, 자원개발 문제이다. 전 세계 미발견 석유자원의 12.3%, 천연가스의 24.1%가 북극에 있다. 그러나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 특수장비가 필요하고, 초기 개발비용과 수송비용이 높으며 근무환경도 열악하다. 관할권에 따른 분쟁도 문제다. UN해양협약에 따라 대륙붕이 연장되고 있는데,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 노르웨이와 러시아, 미국과 캐나다가 분쟁 중이다. 그리고 환경보호 강화와 규제에 따른 비용 부담도 북극의 활발한 자원개발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셋째, 수산자원과 환경보호 문제다. 북극해에는 상당한 수산자원이 있는데, 이와 비례해 환경보호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탐사나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각종 규제가 생겨나고 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가 주도해 '극지규범(Polar code)'을 만들고 있어 개발과 환경보호의 조화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넷째, 북극 관리체제 문제다. 1996년 북극해 연안국 중심의 고위 협의체인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가 만들어졌는데,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러시아, 미국 등 A5국가들이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외에 북극에 관심을 가진 국가나 단체에 옵저버 자격을 주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5월 영구 옵저버가 되었다. 하지만 영구 옵저버는 이사회 참석은 할 수 있으나 발언권이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는 없다.

러시아에 있어 북극은 아주 중요한 곳이다. 러시아에서 북극은 전 국토의 약 30%를 차지하며, 북극영토의 해안선만 4만 킬로미터에 달한다. 북극지역의 미발견 석유 및 가스의 60%가 러시아 영토에 있다. 그래서 러시아 재정에서 북극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상당히 크다. 최근 푸틴 대통령은 군사, 전략, 경제적 가치를 재평가해서 군기지 및 북극함대를 재배치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한러협력으로 북극 블루오션 열어야

러시아는 4대 북극전략을 펴고 있다. 첫째, 러시아의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적 발전기지로 북극을 이용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로 북극점 해저에 러시아 깃발을 꽂았다. 둘째, 평화협력지역으로써 북극지역을 보호한다는 전략이다. 셋째, 북극의 특이한 생태계를 보존한다는 전략이다. 넷째, 국가 통합 운송 교통로로서 북극해 항로를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한국과 러시아는 북극문제에 대해 전체보다는 분야별, 하부 관리체제와 같은 특정문제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 예가 북극해 항로 개발이다. 쇄빙시추선이나 플랜트건설 등의 자원개발 협력도 필요하다. 이런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다보면 북극해 항로가 Silk road express의 중요한 부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만 단독으로 할 것이 아니라 관련 주변국을 잘 활용해야 한다. 러시아는 노르웨이, 캐나다와 분쟁을 하고 있는데, 이들과 잘 협력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동북아국가 중에서도 북극해 항로 개발에 뛰어들어 중국, 일본과 협력해 배타적으로 움직이는 북극관리 체제에 대한 장애물을 극복해나가야 한다.

국제적으로 환경훼손 방지를 위한 국제규범 및 기준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제해사기구의 극지규범이나 해로 항로를 이용하면서 A5국가들이 만든 환경보호를 위한 권고문(AMSA recommendations)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권고문을 준수해야만 그들로부터 협력을 받을 수 있다.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 북극 블루오션을 개척할 수 있기를 바란다. ■■



▲ 브누코프 대사 주제발표



▲ 한러협력 특별세미나 토론



▲ 행사를 후원한 손경식 CJ 회장

제1806회 HDI경영자연구회 신뢰경제의 회복



우리나라는 1962년 경제개발5개년 제1차 계획을 시작했다. 당시 우리나라 수출은 5천만 불이 조금 넘었다. 그런데 작년 수출액이 5천억 불을 넘어 전 세계 7위를 했다. 2011년에는 무역 1조 달러를 돌파해 올해까지 3년 연속 1조 달러 돌파가 예상된다. 산업분야에서도 반도체, 메모리, 조선, 디스플레이, 휴대전화에서부터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전 산업이 골고루 발전하면서 세계에 그 위상을 떨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민도 있다. 최근 3년간 경제성장률은 3%를 조금 넘었고, 지금은 과연 1%를 넘길 수 있느냐 하는 실정이다. 삶에 대한 만족도, 건

강만족도도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로 하루에 4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 중 중고생들이 하루 6~7명이나 자살을 한다. 출산율은 보스니아 다음으로 낮고, 교통사고율도 높다. 세계적 위상으로 보면 상당히 성장했는데, 앞으로 나아갈 길이나 현 상황을 보면 암담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돌파해야 할까? 현 상황의 돌파구는 '사회적인 신뢰 회복'에 있다는 것이 내 결론이다. 프란시스코 후쿠야마 교수는 그의 저서 <트러스트>에서 '한국은 저신뢰사회'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저신뢰사회는 경제발전을 못하는데, 한국은 발전했다고 했다. 그 이유로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을 들었다. 국민들이 뚝뚝해서, 그리고 대기업들을 키워서 끌고 나갔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신뢰가 없는 사회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하는데 엄청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간에 협력을 촉진하는 모든 무형의 자산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이다. 그 다음이 규범, 네트워크 등이다. 경제성장을 이룩하는데 있어 토지, 시설 등 물적자본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노동의 양뿐만 아니라 질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휴먼 캐피탈인 인적자본이 중요해진다. 정보화사회, 지식기반사회로 넘어가면서 중요해지는 것이 구성원간의 믿음이라는 소셜 캐피탈이 세 번째 자본으로서 등장한다.

가정이라는 유대감으로 시작된 대한민국 경제개발

1963년 12월, 우리나라 광부들이 서독으로 파견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수많은 간호사들이 서독으로 파견되었다. 당시 이들을 떠나보내는 현장은 울음바다였다. 14~15년 동안 서독으로 파견된 광부가 8천여명, 간호사는 1만여명이다. 지하 1천km에서 석탄을 캐다가 사고로 죽는 사람들도 많았다. 간호사들이 처음 서독에 가서 한 일은 시체를 닦는 일이었다. 이렇게 일해서 이들이 한국으로 송금한 돈이 1억 불이 넘는다. 총 수출액의 2%나 되는 규모

로 이 돈이 종자돈이 되어 우리의 경제개발을 시작할 수 있었다.

월남 파병도 마찬가지다. 1965년부터 1973년까지 31만 명이 넘는 우리 군인들이 베트남으로 건너갔다. 이를 계기로 8억 불 넘는 외화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차관도 1억 5천만 불이 넘게 들여올 수 있었다.

60년대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가발은 미국에서 인기가 좋았다. 인조가발이 아닌 생모였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머리칼을 잘라 팔았고, 딸들은 공장에 취직해 가발을 만들었다. 이렇게 번 돈으로 가정을 먹여 살리고, 동생들 공부를 시켰던 것이다.

이렇게 아무 것도 가진 것 없이 맨땅에 헤딩해서 우리는 경제개발을 시작했다. 이러한 경제개발의 씨앗이 된 것이 바로 동양적인 유교윤리였다.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인데, 가족을 위해서라면 희생이 아깝지 않았다. 이것이 발전해 사회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하고, 사회에 기여하려는 생각이 나아가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이어져 경제개발의 밑바탕이 되었다.

격동의 성장사를 이어간 대한민국 경제

60년대는 여성들이 경제개발의 주역이었다면, 70년대는 남성들이 주역으로 나서는 시대였다. 70년대 두 번의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은 오히려 오일달러가 쌓여있는 중동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면서 정해진 공기보다 앞당겨 건설하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줬다. 열사의 땅 중동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산업전사로 뛰어들어 벌어들인 돈이 전체 외화수입액의 85%나 되었다.

1973년 1월 대통령은 연두교서를 통해 철강, 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기계, 비철금속 등 6대 전략산업을 키워나가겠다고 천명했다. 그렇게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은 시작되었다. 경공업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중화학공업이냐는 미국의 비판도 있었지만 우리의 근로자들은 자기가 몸담은 기업이 발전하면 그것이 바로 국가에 봉사하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뚝뚝 뚝뚝 했다. 그리고 정부는 많은 돈과 기술이 필요한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해 대기업을 키웠다. 가난한 집안의 맏아들만 잘 되면 그아들이 나머지 동생들 교육도 시키고 집안을 끌고 나간다는 생각과 같은 것이었다.

이때의 중화학공업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슈퍼터의 '창조적 파괴'가 아니었을까? 중화학공업을 발판 삼아 우리나라는 1977년 처음으로 수출 100억 불을 돌파했다. 또한 77년은 1인당 GNP가 1천 불을 막 돌파한 역사적인 해이기도 하다.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3가지 동력이 있다. 첫째, 정부가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입안하고 끌고 나갔던 리더십이 있었다. 둘째, 우리 기업들이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정부 정책을 잘 받쳐줬다. 셋째, 무엇보다 국민들이 '잘 살아 보자'는 경제적 의지와 단결된 힘으로 발전을 일구어나갔다. 결국 아무도 꿀을 수 없을 정도의 단단한 결속력을 지닌 '철의 3각형'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이다.

압축성장의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한 대한민국 경제

우리 경제는 80년대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며 싱가포르, 홍콩, 대만을 포함해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 불렸다. 1988년 11월에는 서울인구가 1천만 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급격한 도시화와 핵가족화는 가정의 끈끈한 유대를 약화시키고 개인화를 불러오기 시작했다.

또한 민주화의 열기로 인해 노사분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집단이기주의와 남비현상이 나타난 것도 이 시기다. 부의 편중이 일어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빈곤감에 전통적인 평등주의가 한계점에 달해 폭발하는 시기로 민주화 열풍과 맞물리는 시점이기도 하다. 특히 5-6공화국의 권위주의로 인해 부정부패가 늘어났고, 관료주의가 강해지면서 사회적 신뢰가 저하되는 등 압축성장의 후유증이 나타난 시기이기도 하다. 반면 전 세계적으로는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단일경제체제에서 세계경제체제로 넘어가는 세계화의 시기였다.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 맞은 90년대

90년대 초중반 가장 유행했던 용어가 '고비용 저효율'이다. 기업과 근로자의 임금상승 요구율이 너무나 큰 격차를 보였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70조를 넘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세대차이, 세대격차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3D 업종을 꺼리는 노동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도 일어나기 시작한 시기이다.

95년 WTO가 출범하면서 완전 자유화, 개방화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무한경쟁, 국경없는 경쟁의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문제는 우리가 신자유주의와 금융의 세계화에 아무 대책없이 빠져들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결국 IMF사태를 촉발시켰다.

이때 우리 정부는 세계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지만 기업들은 기업대로 세계화를 추진해나갔다. 삼성 이근희 회장의 신경영 선언, 럭키금성의 LG로의 사명변경과 21세기 경영전략 수립, 선경의 SK 사명 변경과 최종현 회장의 슈펙스 전략 등이 대표적이다.

이 시대에 중요한 화두 중 하나가 바로 정보화다. 우리나라는 엄청난 속도로 정보통신 분야의 화두를 잡고 선점해나갔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지구상 어디에서도 벤치마킹할 것이 없는 나라가 되었다.

중요한 것은 민주화, 정보화의 물결로 인해 우리나라에 많은 동아리 모임이 생기고, NGO도 생겼다. 소위 자발적인 결사체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자발적인 결사체가 늘어나면 학연, 지연, 혈연 등 폐쇄적인 네트워크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은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단결심, 공적 정신도 커진다. 이것은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쌓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발적인 결사체가 생산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어설픈 대응을 했다는 점은 아쉽다.

IMF위기 이후 급격히 낮아진 사회적 신뢰도

미국 미시건대학에서 진행한 신뢰지수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평균보다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리고 지금도 사회적인 신뢰지수는 계속 내려가고 있다. IMF 외환위기로 국가신인도도 떨어졌고, 사회 구성원간 신뢰도 저하되고 있다.

민익빈 부익부는 더욱 심해졌고, 소득과 고용의 양극화도 심해졌다. 비정규직 문제도 심각해져 2005년 기준 500만 명의 비정규직이 양산되었다. 무분별한 카드발급으로 인해 카드대란이 일어났고, 신용불량자가 대거 양산되었으며, 가계부채 증가는 결국 국내에서 내수가 일어날 수 없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조직 내에서의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노사관계도 양보와 타협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립이 심해졌다. 이것이 지역, 이념, 정치 갈등으로 증폭되어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후반 우리나라는 무역 1조 달러를 돌파했고, 무역규모로는 세계 8위, 수출은 7위를 달성하는 위상을 거두었다. 2008년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가장 빨리 그리고 잘 탈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 결과 2010년 서울 G20정상회의와 비즈니스 서밋을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2050클럽'에도 가입했다. 지금껏 원조만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신했다. 문제는 이렇게 자랑스러운 국격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힘과 저력을 모르고 있다.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때

중국 속담에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을 때가 20년 전이다. 만약 그때 못 심었으면 그 다음 때가 지금이다'라는 말이 있다. 마찬가지로 신뢰경제, 소위 사회적 신뢰를 20년 전에 지속적으로 축적해왔다면 좋았겠지만 이미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 그러나 바로 지금이야말로 사회적인 믿음, 신뢰를 생성하고 축적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고용창출이다. 민생은 고용이고, 고용은 최고의 복지다. 고용이 있어야 믿음이 가고, 신뢰 회복이 이루어진다. 또한 일자리를 국내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해외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도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를 움직인다'는 슬로건 하에 해외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는 기업생태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중소기업도 힘들겠지만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는 길은 출산율을 높이든지 이민을 받는 것이다. 동남아시아국가의 유능한 인재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한 이민정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사회의 다문화화정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우리의 이웃이고 가족,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넷째, 정부는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 대기업은 경영의 투명성이 중요하다. 이것이 정부와 대기업의 몫이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의 근로자가 힘을 합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구축하고, 노사간의 신뢰회복을 우선시해야 한다.

공공갈등 분야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 사회적 신뢰 훼손이 심각한 수준이다. 준법정신,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과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질서 준수에 대한 지수가 가장 낮은 국가다. 이런 부분에서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회적인 신뢰와 경제도약은 생각할 수 없다.

밖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위대하다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인식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다.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발전한 개도국의 희망 아이콘으로 인식된다. 이런 해외의 기대와 수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해외에 나가서 살 길은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뢰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뢰경제회복을 범국민운동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5년, 10년 장기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피드백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세계 최고의 암센터 꿈꾸는 이진수 원장의 암 '걱정' 없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이진수 국립암센터 원장



사진: 오경근 원장

과거 우리는 '암'이라고 하면 '죽는 병'으로 여기고 지레 겁부터 먹었다. 그러나 이진수 국립암센터 원장은 '암은 이제 가지고 사는 병, 치료할 수 있는 만성병'이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하고, 진행 상태에서 발견돼도 치료제가 발달해 장기 생존이 가능한 시대가 왔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가 암검진사업을 통해 조기 발견해 치료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 첫 번째 이유다. 의료기술과 치료제의 개발도 생존율을 높이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

고령화 등으로 인해 암 경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소위 '암과 더불어 사는 시대'인 지금, 국립암센터는 암연구 수행 및 지원, 암환자 진료, 국가 암관리 사업 지원, 암전문가 교육 등 암 정복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8년 제4대 원장으로 취임한 이진수 원장은 부속병원 초대 병원장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국립암센터의 발전을 주도해온 산증인이다.

이 원장은 2014년을 국립암센터 제2도약의 해로 정하고, 항암신약개발사업,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개교, 병동 증축공사를 통한 진료환경 개선 등의 사업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이를 통해 국가 암관리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직접 실행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암 걱정 없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다.

항암신약개발로 인한 기술이전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등 국립암센터의 새로운 가치창출에 주목해달라는 이진수 원장을 만나 국내 암연구의 현주소와 국립암센터의 국가적 역할, 새로운 가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대담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올해로 국립암센터가 개원한지 14년이 됩니다. 2008년 원장에 취임하셨는데요. 먼저 국립암센터의 기능적 역할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국립암센터는 2000년도 설립 이후 암연구 수행 및 지원, 암환자 진료, 국가 암관리사업 지원, 암전문가 교육훈련 등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관리정책 개발, 국내 암연구 진흥, 국내 암전문 의료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2006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제2기 '암정복 10개년계획'의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국립암센터는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암전문 인력 및 최첨단 연구·진료, 장비·시설을 갖춘 연구소, 부속병원,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세계적 암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제암대학원대학교까지 4개의 큰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립암센터는 'Think & Tank'로서 국가 암관리 정책을 제시하고 직접 실행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은 물론 모든 직원들의 창의적 핵심역량을 총동원해 2014년을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해로 만들 계획입니다.

올해 신년사에서 항암신약개발 컨트롤타워 역할과 공익적 임상연구 활성화를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동안 우리나라는 항암신약개발에 많은 돈과 시간이 든다고 해서 자포자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대학 교수들이 연구 끝에 항암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해도 이것을 제품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국립암센터 연구소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당시만 해도 연구논문을 쓰는데 주력했는데, '입도 선매'라고 농사지어서 추수한 뒤에 팔아야 하는데, 추수도 하기 전에 팔아버리면 제값을 받지 못하죠. 결국 기술이 산업화로 이어지지 못하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는 겁니다.

항암제도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후보물질을 단순히 기술이전 하는 것보다 임상시험을 통해서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이전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때부터 특허출원에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죠.

결국 이것이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2010년부터 국책사업으로 시작된 것이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 사업입니다. 국내 산학연이 발굴한 항암신약 후보물질의 후속개발을 통해 이들 유망물질이 글로벌 항암신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 병목단계 개발을 지원하는 겁니다. 물질발굴자가 아닌 신약개발의 전주기를 경험한 전문가가 사업을 주도하며, 항암제라는 단일 질환을 선택하여 집중 개발하는 등 우리나라의 국가 신약개발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국책사업으로 선정된 후 8차에 걸쳐 공모한 107건의 후보물질 중 11건을 선별해 현재 4건의 신약 후보물질이 초기임상 개발 단계에 진입했거나 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립암센터는 글로벌 항암신약개발을 목표로 이와 같은 국가주도 신약개발사업의 모범실무를 제시해서 개발신약의 수출을 통한 국부증대 및 제약·바이오 강국으로의 도약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익적 임상연구를 더욱 활성화시켜 수년 내에 국립암센터가 개발한 항암신약을 전 세계 암환자에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 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국립암센터가 개발한 혈액을 이용한 대장암 조기 진단 기술, 나노 형광 수술 표지자 기술과 간암 유전자 치료제 기술을 각각 10억원 이상의 선급기술료를 받고 기업에 이전하기도 했습니다.



▲ 2014년 신년사를 통해 제2도약을 선언한 이진수 원장

병원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병동 증축 공사가 예정된 것으로 압니다.

1992년 착공해 1999년 완공한 부속병원 본관과 주요 시설물의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2010년 10월 시설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준비해온 끝에 올 1월부터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총 8년의 사업기간 중 1, 2단계인 초기 2년은 중환자실 개선 및 증축, 전립선암센터 외래 확장이전, 검진동에 대한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4년의 3단계에서는 주차시설 확보 및 병동증축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마지막 4단계 2년은 기존병동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220병상 규모의 병동 증축공사가 2016년 6월 완공되면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진료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국립암센터는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병동증축 공사에 들어갔다. 공사후 병원 조감도

국제암대학원대학교가 오는 3월에 개교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운영될까요.

지난해 9월 10일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설립인가를 받아 교수 요원과 1기 학생모집을 마무리하고 3월 3일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제암대학원대학교는 암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암관리 및 암연구의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대학입니다. 더불어 지역사회에 적용이 가능한 이행성 연구 전문가를 양성하고, 세계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연구의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석사학위 과정 35명을 선발할 예정인데요. 전공은 암관리정책학과와 시스템종양생물학과 등 두 과입니다. 암관리정책학 전공은 암의 일차 예방, 조기검진, 진단치료, 완화의료의 개념과 이를 지원하는 암교육홍보, 암등록통계, 암정책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암관리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 국가의 암발생과 암사망을 감소시키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는 인재를 양성하게 됩니다. 시스템종양생물학 전공은 암 발생의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의 상호작용 전반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연마해 창의적인 암연구 인력을 양성하게 될 예정입니다.



▲ 3월 개교하는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국립암센터에서 암세포 증식 RNA를 자살유전자로 치환시키는 신개념의 유전자 치료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술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 기술은 암 증식 유전자를 찾는 동시에 치료 유전자로 치환시킴으로써 정상세포는 보호하고 선택적으로 암 세포만 증식 억제하거나 암세포를 스스로 파괴하게 하는 획기적인 유전자치료 기술입니다. 현재 암환자들에게 다양한 표적치료제가 쓰이고 있지만 대다수의 환자들이 표적 치료제의 대상이 아니거나 치료 후 내성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이 기술은 해당 환자에서 유전자 발현 정도를 미리 확인하고, 암세포 사멸을 유발해 암을 치료하게 하는 신개념의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 신약기술 이전에 앞장서고 있는 국립암센터

최근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암을 치료하고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암이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5년 생존율'은 치료의 성공여부를 평가하는 척도로 사용됩니다. 2011년 국가 암등록통계에 의하면 2007~2011년 진단기준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은 66.3%로 5년 전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생존율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암 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 발견해 치료하는 분들이 늘어난 게 가장 큰 이유죠. 국가 암 검진사업에 따라 위, 대장, 간, 유방, 자궁경부암 등 5대 암에 대해서 소득 하위 50%는 무료로, 그 외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부담금 10%만 내고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암 종별 생존율은 각각 다르지만 모든 암에서 조기에 진단받고 치료하는 경우 높은 생존율을 보이는 반면, 암이 진행된 후 진단될수록 생존율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암의 조기발견과 더불어 임상적으로는 의료기술과 약제의 발달이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이유입니다.

'암 경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암과 더불어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데다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암 환자의 생존자가 늘어나면서 '암과 더불어 사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11년 국가암등록통계에 의하면 암을 경험한 인구가 109만 7253명으로 여성이 60만5748명, 남성이 49만1505명입니다. 전체 국민수로 나누면 인구 45명당 1명이 암 치료를 받고 생존해 있는 셈이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수명인 81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이 36.9%입니다. 평균수명이 77세인 남성은 5명 중 2명, 84세인 여성은 3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은 암에 걸린다는 이야기죠. 암 종별로는 갑상선암이 가장 흔하고, 이어서 위암, 대장암, 유방암, 폐암, 간암 순입니다.

암이 멀리 전이되지 않은 경우 전립선, 갑상선, 유방, 대장, 위암 등 대다수 암의 5년 생존율이 90%를 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는 것이 재확인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암 연구 및 치료산업의 수준은 어느 정도로 평가되니까.
 우리나라 암 환자 치료수준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와 있습니다. 특히 암 치료에 대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까지는 암이라고 하면 '죽는 병'이라는 생각에 암은 완치해야 하고, 퇴치해야 하고, 정복해야 할 병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암은 가지고 사는 병, 치료할 수 있는 만성병'이라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하고, 진행 상태에서 발견되더라도 치료약이 좋아져서 치료하면서 장기 생존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암은 치료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우선일 것 같은데, 예방 생활수칙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암은 개인의 건강한 생활 실천과 국가의 지원을 통해 얼마든지 예방 가능한 질환입니다. 각종 암의 3분의 1은 예방이 가능하고, 3분의 1은 조기검진을 통해 완치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통증조절 등으로 완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암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2008년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정하고 매년 행사를 갖고 있고, 연말에는 국가암관리사업 평가대회도 열고 있습니다.

암 예방 생활수칙으로는 첫째,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해야 합니다. 둘째,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술은 하루 두 잔 이내로만 마시는 절주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곱째,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 등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여덟째,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홉째,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 수칙을 지킵니다. 마지막으로 암 조기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진수 원장과 장만기 회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암 예방 수칙 첫 번째로 금연을 주장하셨는데, 원장님께서서는 폐암 전문가로서 담배와 관련해 정부차원의 강력한 규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신 바 있습니다.

암 예방을 위해 가장 강조되는 것이 금연입니다. 담배 연기에는 4000종 이상의 유해물질, 60종 이상의 발암물질이 들어있어요. 보건당국에 따르면 금연을 하게 되면, 후두암 환자의 70%, 폐암 환자의 46%, 방광암 환자의 35% 정도가 감소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의 흡연인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담배의 유해함을 알리고 규제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죠. 기본적으로 담배의 유해성을 알리기 위해 담뱃갑의 디자인을 더 강력한 금연 메시지 및 그림으로 바꾸고 경고메시지의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OECD국가 평균에 비해 담뱃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담뱃값이 높은 나라의 경우 흡연율이 낮고, 일본정부가 2010년 담뱃값을 40% 인상했을 때 흡연율이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 외에도 니코틴 함량에 관계없이 담배가 인간에게 백해무익하다는 사실을 인지시키기 위해 '마일드', '1mm'라는 등의 긍정적 단어를 제외시키는 등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생활을 위해 '출산육아 장려 캠페인'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출산육아 장려 캠페인'은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는 운동으로 남녀 구분없이 육아휴직 2년 확대, 101만원 출산장려금 지급,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육아휴직기간 경력산정 포함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맘들이 편안하게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도록 유축기, 모유 저장팩, 수유 패드, 냉장고, 싱크대 등을 갖춘 수유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임산부와 그 해 출산한 산모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6회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2008년 첫 행사 때만 해도 출산휴가자 43명 대비 육아휴직자가 11명으로 26% 참여에 그쳤으나 지난해 행사 기준으로 출산휴가자 42명 대비 40명으로 95% 참여율을 보이는 등 제도 시행 이후 직원들의 참여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들이 2년 동안 아이를 돌볼 수 있어서 행복했고, 복귀 후 업무 몰입도가 향상되었다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 출산육아 장려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국립암센터

최근 민간 대형 병원들이 암센터를 개원하면서 국립암센터의 차별화 이미지가 약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사실 민간 병원들에서도 암환자 진료와 치료는 예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국민들의 정서상 암을 드러내놓고 치료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런데 국립암센터가 설립되고 병원 이름에 '암'이 노출되면서 더 이상 암을 숨길 수 없게 되자 '암센터'라는 이름으로 간판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국립암센터는 민간 암센터와의 경쟁보다는 '새로운 가치창출'에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하기 어려운 분야의 암에 관한 연구와 진료 등을 기반으로 국민의 암 발생률과 사망률을 낮추고 더불어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인재양성, 신약개발로 인한 기술이전으로 창조경제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경제산업화의 길이 국립암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립암센터 원장으로서 또 암 전문의로서 꿈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나라 암 치료 문화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몇 가지 꿈이 있습니다. 먼저 국립암센터 기관으로서의 꿈은 '국립암센터가 세계 최고의 암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있어서는 '일하고 싶은 직장, 행복한 직장 만들기'가 꿈이죠.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암 걱정 없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의사로서의 제 꿈입니다.

과거에는 암에 걸리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암에 걸려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줄어드는 거죠. '암 걱정 없는 행복한 세상'에서 '걱정을 빼면' '암 없는 행복한 세상'이 됩니다. 그 걱정을 없애줄 수 있을 때까지 의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싶습니다.

조찬세미나 개최 등 CEO의 학습문화 조성, 전국 지자체 및 기업, 공공기관 아카데미 교육으로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해온 인간개발연구

원에 대한 평가와 제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된 리더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모범이 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도 꾸준한 교육과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이 올해로 39주년을 맞이하는데, 그동안 개인과 조직의 공동체 의식과 창의적인 사고를 심어주는데 있어 연구원의 교육활동이 큰 가르침이 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40년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함에 있어 대한민국의 리더들이 참리더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교육의 장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이진수 원장은...

1950년 생으로 서울대 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2년부터 미국 MD앤더슨병원 중앙 내과, 흉부종양내과, 흉부 및 두경부종양내과에서 교수로 활동했으며, 현재도 흉부 및 두경부종양내과 외래교수로 활동 중이다. 폐암과 식도암 전문의로서 새로운 치료법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연구를 거듭해온 그는 2001년 국립암센터 부속병원장에 취임한 이후로 폐암센터 센터장, 폐암연구과장, 연구소장 등을 거쳐 2008년 국립암센터 제4대 원장에 취임했다. 제12차 세계폐암학술포럼 조직위원장, 세계폐암학회(IASCL)이사회 이사, 대한암학회 회장 등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한국역학회 이사,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평생 한 번은 암에 걸릴 확률을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암은 '선고'가 아니라 '진단'에 의한 치료를 통해 완치 및 장기 생존이 가능한 '만성병'이다'고 말하는 그는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암 없는 행복한 세상'을 꿈꾸고 있다.

'삼성 홀리스틱 마케팅포럼'에서 밝히다

삼성은 어떻게 세상을 홀렸는가? - 세계를 홀린 삼성전자 마케팅의 비밀

지난해 4~5월,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의 성공비결을 배우는 '런삼성포럼'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 삼성전자의 Holistic 마케팅 프로세스를 배우는 '삼성 홀리스틱 마케팅포럼'이 지난 12월 9일 삼성동 글라스타워에서 원데이 과정으로 개최됐다.

Holistic마케팅이란 삼성전자의 마케팅 핵심요소로 사내 모든 부문이 참여하고 고객이 경험하는 모든 채널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을 말한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시장에서 Low-end의 낮은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던 삼성이 초일류 브랜드로 성장해 스마트폰 세계 1위, 미국 TV시장 7년 연속 판매 1위 등 초일류 브랜드로 성장한 과정에는 R&D, 디자인과 함께 세상을 매료시킨 삼성의 Holistic 마케팅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확인하듯 세계는 경이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삼성의 경영과 마케팅에 주목하고 삼성을 학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40명의 기업 대표와 임원, 팀장급 중간관리자들이 참석한 이번 포럼은 '삼성전자는 어떻게 세상을 홀렸는가? - 하루에 배우는 초일류 삼성전자 마케팅의 비밀'을 주제로 삼성전자에서 오랜 업무와 지식을 쌓은 전문가들로부터 삼성의 Holistic 마케팅 프로세스(권재진 JYM파트너스 대표), 삼성 브

랜드마케팅(이주형 Firefly Branding Korea 대표), 삼성전자의 디지털마케팅(백승록 JYM파트너스 대표), 삼성전자의 마켓 인텔리전스(권재진 JYM파트너스 대표), 삼성전자의 Experience 마케팅(구본무 Brancom Associates 대표) 삼성전자의 스포츠마케팅(윤정민 한국오라클 부장) 등 삼성전자의 마케팅 히스토리와 성공, 실패사례, 방법론 등에 대해 심도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포럼을 준비한 박성민 인간개발연구원 차장은 "대구의 지방도시에서 시작한 삼성이 불과 75년 만에 굴지의 초일류 기업이 되었고, 이는 대한민국이 자랑할 만한 엄청난 성공의 기록"이라며, "지난 런삼성포럼에서 삼성전반에 걸친 경영의 Tool을 학습했다면 이번 포럼은 좀 더 심화되고 특화된 과정으로 삼성전자의 초일류 마케팅 프로세스를 학습하고 실행의 툴을 익힘으로써 대중소 중견기업간 동반성장과 기업의 영원한 과제인 마케팅 툴을 성공한 기업으로부터 배워보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인간개발연구원은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국내기업들의 성공사례를 통해 경영의 툴을 학습하기 위한 경영 벤치마킹 과정을 2014년에도 꾸준히 기획 운영할 계획이다. ■■



▲ 삼성 홀리스틱 마케팅포럼



▲ 이주형 대표



▲ 권재진 대표



▲ 백승록 대표



▲ 구본무 대표



▲ 윤정민 부장

- CEO 스피치 과정 10기 수료 연말연시, CEO스피치로 스타가 되어보자!

최근 CEO들은 미디어나 공식석상에 설 기회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미디어 시대, 이는 CEO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자칫 공들여 쌓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의 시대이기도 하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CEO의 품격있고 세련된 이미지와 스피치이다. 최신 트렌드에 맞으면서도 직원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이미지를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청중을 사로잡는 음성과 유머를 곁들인 스피치의 노하우는 무엇일까? 각종 모임과 파티에서의 즉석 스피치, 건배사 대처 요령은 무엇일까?

이 모든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 봄온스피치아카데미와 인간개발연구원이 개설 운영해온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CEO 스피치 10기'가 지난 12월 6일 원데이 과정으로 봄온스피치아카데미 강남캠퍼스에서 진행됐다. 연말, 연초 CEO들의 숨은 스피치 고민 해결에 나선 이날 과정에는 총 8명의 CEO들이 참석해 회사의 리더로서 스피치 훈련을 통해 품격있고 세련된 CEO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다.

성연미 봄온아카데미 대표와 송지은 전임강사의 지도 아래 참가자들은 트렌드에 맞춘 CEO의 이미지 컨설팅, 공적인 자리의 격려사, 사적인 자리의 건배사에서 주의사항과 이론적 토대를 배워보고 실제 카메라테스트 후

피드백을 통해 개선점을 체크해보는 실질적인 교육으로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참가자들은 몇 가지 주의사항을 염두하고 카메라 앞에 섰지만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숙지한 후 치러진 2차 테스트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자세와 언어구사로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다.

공식적인 연설을 할 경우,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것, 본인의 경험과 사례를 이야기할 것, 되도록 짧게 말할 것 등이 핵심 사항이다. 사적인 자리에서의 스피치도 본인의 관심을 표할 것, 부서 개인 업적에 대해 언급할 것, 문화예술 등 트렌드를 반영한 사회적 이슈를 이야기할 것, 센스있는 유머를 섞어 말할 것 등이 주요 핵심사항이었다.

과정에 참석한 조종성 COEURO 대표는 "연말연시 모임에 참석하면 스피치나 건배사 제의를 받고 당황해서 머리로 생각했던 말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이론적 바탕 위에서 실습을 통해 배우고 나니 스피치에 자신감이 생긴다"며 "다가올 연말모임에서는 당황하지 않고 좀 더 세련된 건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만족해했다.

윤용암 삼성자산운용 사장은 "그동안 직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연설했던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내 뜻을 제대로 전달했는지, 직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연설을 했었는지 생각하게 됐다"며, "의상부터 태도, 표정, 목소리, 어투 등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고 배려하는 CEO의 모습으로 직원들과 소통해야겠다"고 수료 소감을 밝혔다.

본 과정은 다양한 주제로 방송실습 녹화와 피드백의 시간을 통해 스피치의 기본과 세부 스킬을 배우고 실천하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14년에도 상하반기 1회씩의 과정을 계획하고 있다. ■■



▲ CEO 스피치 과정 10기가 12월 6일 봄온스피치아카데미에서 열렸다.



▲ 김인환 부장

▲ 윤용암 사장

▲ 정종보 국장

▲ 조종성 대표

▲ 한영섭 원장

"Spero Spera 숨 쉬는 한 희망은 있다" 꿈과 인생, 웃음과 음악이 있는 희망토크콘서트



장기불황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경영현장을 지켜온 기업인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2014년의 비전을 나누는 '2013년간개발연구원 송년의 밤'이 지난 12월 26일 역삼동 아모리스홀에서 250여 명의 회원 및 회사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송년의 밤은 경제 한파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마음속 절망을 위로하고 2014년 새로운 한 해가 희망의 꽃으로 만개하기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Spero Spera 숨 쉬는 한 희망은 있다'로 주제를 정하고 꿈과 인생, 웃음과 음악이 있는 희망토크콘서트로 개최했다.

우리에게 늘 행복메시지를 전해주는 행복지기 정덕희씨의 사회로 시작된 토크콘서트 1부 '희망을 노래하다'에서는 가난한 복서에서 동양의 파바로티까지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온 테너 조용갑이 무대에 올라 희망아리아를 선물했다. 음악뿐만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절망의 순간들과 그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고 역경을 딛고 세계적인 테너로 우뚝 서기까지의 눈물겨운 여정을 담담히 밝혀낼 때 청중들은 그 인생의 깊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음악적 감동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었다.

2부 '행복을 노래하다'에서는 청계천 거지에서 톱가수로, 그리고 지금은 예음예술종합신학교 총장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있는 노래하는 목사 윤항기씨가 무대에 올라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Why' 등 주옥같은 노래를 선물에 청중들을 추억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었다. 특히 가수로서의 삶과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토크로 풀어내는 그의 모습에서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 조용갑 테너의 무대

▲ 윤항기 목사의 무대



이날 행사에는 최광식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김영환 국회의원, 정태익 한국외교협회 회장, 이규형 전 주중대사, 유상옥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전순표 세스코 회장, 송하성 경기대 경영전문대학원 원장 등 본원 회원 및 강사진을 비롯한 사회 각계 리더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장춘권 MC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시간에는 참가자들과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과 함께 회원사에서 후원 협찬한 다양한 경품들이 선물로 돌아가 흥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행사가 끝난 뒤 돌아가는 회원들의 얼굴에는 한해의 피로는 잊은 채 다가올 2014년 희망만을 가득 품은 밝은 미소가 가득했다.

한편 이번 송년의 밤 행사 수익금의 일부는 오퍼레이션 스마일코리아(이사장 전순표 세스코 회장)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구순구개열 어린이들의 무료복원 수술을 돕는 일에 기부되어 따뜻한 정을 나누는 연말의 의미를 더해줬다. **111**



▲ 즐거워하는 참가자들



▲ 2부 시간에는 레크리에이션과 함께 다양한 경품추천 시간이 이어졌다.



2013 HDI 송년의 밤 - 희망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신 회원 및 강사 여러분, 그리고 후원 및 협찬을 통해 풍성한 송년파티를 만들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소속	내용
김도연 달콤한책 대표	<로맨틱 블랑제리> 도서 60권
김명숙 나무발전소 대표	<행복플래너>도서 160권
김병수 우리안치과원장	VIP스케일링권(5만원) 200장 1000만원 상당
김기호 아름다운삶 교육원장	
김상희 (주)웰코스 회장	웰코스 핸드크림 150개
김석문 (주)신일팜글라스 사장	어덜리투스 어더크림 32개 히말라야 고급비누 160개
김영덕 (주)유섬 회장	퀴즈노스 5만원 기프트상품권 6매 (30만원)
김영란 행복IN투어 이사	제주왕복항공권 2인 제주아쿠아리움 4인 입장권
김혜경 도서출판 푸른숲 대표	<남자의 후반생>도서 30권
다니엘 메이 블루벨코리아 SLBI 대표	여권지갑 30개
손경식 한국서화원로 연합회회장	취호1호점
송용덕 롯데호텔 사장	롯데호텔 라세느 4인 식사권
양병무 재능교육 대표	2014 재능교육 수첩 200개
유미령 제주원더리조트 사장	제주원더리조트 스위트룸 2박 숙박권
유상옥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2014 탁상용달력 100부부
윤종효 쉐리코리아 대표	쉐리 라텍스 토퍼 3개 (각 40만원)
이동현 강남와인스쿨 회장	와인폴리페놀 선물 10세트
이원기 (주)원풍물산 회장	킨록앤더신신사복 수트 1착
이재욱 (주)중앙에프앤에스 사장	구두상품권 10만원권 2매
이종희 (주)듀오 사장	에트로 솔 2매 (각 40만원) 올랑화장품 2세트 (각 40만원)

소속	내용
이형규 뱅골포코리아 대표	뱅골프 드라이버 2점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멘토플래워 10만원 상품권 2매
진규준 전 걸스카웃 북부연맹장	여행용 칫솔세트 250개
차승일 굿앤브랜즈 대표	Brounsday 2인 식사권 (10만원)
최성훈 도서출판 엠아이드 대표	아시아대평원 외 도서 100권
한영섭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고급 와인 5병
헬린 김 에스텔라 대표	와인 40병
김상래 (주)성도 GL 사장	테이블스폰
김영철 (주)동화세상 에듀코 대표	테이블스폰
김창송 (주)성원교역 회장	테이블스폰
박성훈 (주)모간 회장	테이블스폰
이윤수 (주)KCTC 부회장	테이블스폰
이재욱 Cj대한통운 부회장	테이블스폰
이해성 (주)덕성 부회장	테이블스폰
전순표 (주)세스코 회장	테이블스폰
책글쓰기를 위한 에세이 클럽(회장 정문호)	테이블스폰
권오범 (주)신성월드 사장	후원금 30만원
미상근 (주)협운해운 회장	후원금 30만원
문국현 뉴패러다임 인스티튜드 대표	후원금 100만원
서석홍 (주)동선합성 이사장	후원금 100만원
이용국 (주)신원헬트 회장	후원금 200만원
이중기업동우회 3그룹 화목회(회장 황석희)	후원금 100만원
이중기업동우회 1그룹 (회장 이윤수)	후원금 100만원

회원소식



● **박대성 화백**이 '원융(圓融)'을 주제로 지난 11월 1~24일까지 서울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원융'은 모든 현상이 각각의 속성을 잃지 않으면서 서로 걸림 없이 원만하게 하나로 융합되어 있는 모습, 원만해서 서로 막히는 데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번 전시회는 각각의 속성을 지낸 채 동시에 원만하게 서로 조화를 이루는 '원융'의 경지에 다다른 소산의 삶의 철학이 담긴 작품 50여점이 출품되었다.



● **동화세상 에듀코(회장 김영철)**는 지난 11월 5~6일 양일간 강원도 양구에서 20여 명의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쌀과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가졌다. 이날 에듀코에서는 200여개의 김치통을 기증했으며, 이날 담근 김장김치 2,800여 포기는 쌀 3,040kg과 함께 장애인, 홀로 사는 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생활이 어려운 213가구에 전달되었다.



● **신일팜글라스(대표이사 사장 김석문)**는 지난 11월 7일 충남공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김희경)에서 추진하는 여성 친화적 기업문화 형성을 위한 '여성친화기업 일촌 협약'을 맺었다. 공주대 평생교육원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서 신일팜글라스는 향후 여성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여성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기업의 여성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한수 Big Dream & Success 사장**이 작사한 '송강의 찬가'와 작시한 '송가의 향기'가 지난 11월 12일- 12월 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송강정철 작품유물전시회 특별전(대회장 정운찬 전 총리) 도록에 수록되었다. 공 사장은 이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공로상을 수상하였다.



● **다비육종(사장 윤희진)** 사회복지 자원봉사단은 지난 11월 15일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과 죽산면에 위치한 차량진입이 어려운 재가가정을 방문해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연탄 나눔 봉사활동은 에너지 빈곤층 독거노인 두 가정을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추천 받았으며 연탄 1,000장 지원 및 배달나눔봉사를 통해 다가올 추운 겨울을 맞이해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 **재능교육(대표 양병무)**은 지난 11월 16일 '제23회 전국시낭송경연' 학생부 연말본선을 개최하였다. 올해로 23회째를 맞는 전국시낭송경연 대회는 누적 참가자가 1만 5000명으로 국내 유일의 전국 규모 시낭송 공쿠르에 걸맞은 저변을 확보하였다. 또 시낭송 문화 운동의 공로가 인정되어 박성훈 재능교육 회장은 지난 2008년 한국시인협회로부터 명예시인 칭호를 받기도 하였다.



● **롯데호텔(대표이사 송용덕)**은 지난 11월 21일 페닌슐라에서 보졸레누보 와인을 무제한으로 맛볼 수 있는 '2013 에스프리누보 와인 파티'를 열었다. 프랑스 부르고뉴 주의 보졸레 지방에서는 해마다 9월에 수확한 포도로 만든 햇와인을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전 세계에 출시하는데, 1년에 단 한번밖에 맛볼 수 없다는 희소성과 특급호텔의 고품격 파티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년 와인업계에서도 가장 주목 받는 이벤트로 손꼽히고 있다.



● **임덕규 월간 Diplomacy 회장**은 지난 11월 23일 오전 11시 롯데호텔에서 라오스 추말리 샤야손(Choummaly Sayasone) 대통령을 만나 인터뷰를 하였다.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창수)**는 지난 11월 26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CAPA 항공 어워드 (CAPA Aviation Awards for Excellence)' 시상식에서 '올해의 공항상(International Airport of the Year 2013)'을 수상했다. 인천국제공항이 수상한 '올해의 공항상'은 전 세계 공항들 중 돋보이는 성과를 달성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최고의 공항에 수여되는 상이다.



● **삼익THK(대표이사 부회장 심갑보)**의 봉사단 직원들은 지난 11월 27일 대구 달서구 월성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김장김치 바자회에 참석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소년소녀가장과 홀몸노인 등 달서구의 저소득 주민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웃사랑 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함정희 함씨네토종콩식품 대표**가 지난 11월 29일 웨딩의전당에서 개최된 금암노인복지관 후원의 밤 행사에서 노인 지원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함씨네토종콩식품은 2011년부터 후원기업으로써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 **휴비스(대표이사 유배근)**는 지난 11월 세계 1위 산업용 섬유 '로멜팅 화이버(이하 LMF)'의 생산라인을 증설해 연간 30만톤의 생산체제를 구축했다. 이로써 휴비스는 세계시장에서 45%에 달하는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휴비스가 생산하는 LMF는 지식경제부가 선정하는 세계일류상품에 2001년부터 꾸준히 선정되고 있는 제품이다.



• **NH농협은행**이 GCF(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사무국의 주거래 은행으로 선정되었다. GCF의 헬라 쉬흐로흐 사무총장은 12월 2일 농협은행 송도GCF지점을 방문해 거래신청서를 작성하고 첫 금융거래를 시작했다. GCF는 환경분야의 세계은행으로 불리며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국제금융기구이다.



• **동서식품(감사 김학수)**은 12월 3일 개최된 '제18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소비자 권익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이날 진행된 '소비자의 날' 정부포상은 1996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소비자 권익 향상에 노력하는 개인 및 우수 단체에 주는 상이다. 동서식품은 소비자들에게 최고 품질의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고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방침을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 **김창송 성원교역(주) 회장**이 12월 4일 백범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3 대한민국 인물대상' 사회공헌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김창송 회장이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재형 장학회'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고려인 대학생들을 선발해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원하고, 향후 이들이 고려인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으로써 고려인 동포사회의 자가발전동력을 기르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 **기업은행(행장 조준희)**은 지난 12월 5일 IBK행복나눔재단을 통해 난치성 질환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 104명에게 치료비 4억 원을 전달하였다. 기업은행은 지난 2006년 4월 IBK행복나눔재단을 설립, 총 250여 억 원을 출연해 지금까지 난치성 질환자 1189명에게 49억 원의 치료비와 고등학생 및 대학생 3800명에게 47억 원의 장학금을 후원하였다.



• **전순표 (주)세스코 회장**이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오퍼레이션 스마일코리아가 지난 12월 5일 '제1회 SMILE의 밤'을 개최하였다. Operation Smile은 세계 개발도상국의 기형 어린이들의 무료수술을 지원하는 비영리 봉사단체이다.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개최된 제1회 스마일의 밤은 갈라 및 자선경매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2013~2014년 베트남 아동 500명의 수술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 **김용복 (서울)영동농장 명예회장**은 제8회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12월 5일 충주 호암체육관에서 개최된 '2013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였다.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은 자원봉사, 기부활동에 헌신해 온 우수 자원봉사자 및 단체들을 발굴해 격려하고, 자원봉사 참여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12월 5일을 개최하고 있다. 김 명예회장은 열사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농업으로 성공을 이룬 후 약 30여 년에 걸쳐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 및 개인 사재를 털어 장학재단을 설립해 저소득 학생들을 돕고 있으며, 한사랑농촌문화재단을 설립해 매년 4월 한사랑농촌문화상을 개최하여 농촌의 숨은 일꾼들을 찾아 격려하는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는 점을 평가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 **웰코스(회장 김상희)**가 GS왓슨스 'HWB Award'를 2년 연속 수상하였다. GS왓슨스가 주최하는 'GS Watsons Health, Wellness and Beauty(HWB) Award'는 한 해 동안 소비자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상품과 브랜드를 분야별로 선정하는 의미있는 시상이다. 웰코스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통해 아름다움에 대한 고객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며,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이안 정이안한의원 원장이 농협중앙회에 서 범국민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식사랑농사랑 운동의 추진위원으로 재위촉 되었다. 정 원장은 2011년부터 2년간 추진위원으로 식사랑농사랑 운동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홍보, 강연, 집필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재위촉으로 인해 2014년도부터 향후 2년간 활동하게 되었다.



• 정태익 전 러시아 대사가 12월 13일 열린 한국외교 협회 임시총회에서 제20대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신임 회장의 임기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이다.



• CJ대한통운(대표이사 부회 장 이재욱)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지난 12월 20일 소외계층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사랑의 산타 원정대' 활동을 펼쳤다. CJ대한

통운 사회봉사실천단 '희망나누미'는 이날 서울 중구 신당꿈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과 문예발표회를 열고 선물을 전달하는 한편 어린이들에게 그림책을 선물하는 '찾아가는 그림책' 캠페인 활동도 펼쳤다. CJ대한통운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신당꿈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현장견학, 각종 문화체험 등을 함께하는 '즐거운 토요일'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 동화세상 에듀코(대표 김영철)는 지난 1월 13일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3600여 명의 임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2014년 출정식을 가졌다. 에듀코는 매년 2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며 직원 인재양성을 기업의 핵심가치로 두고 있는 코칭교육 전문기업으로 신사업 완공을 앞두고 올해 25%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슬로건을 Everyday Creative로 정한 에듀코는 축제 형식의 다양한 이벤트와 전 직원의 퍼포먼스가 있는 출정식을 매년 개최해왔다. 올해는 사인스피닝비빙, 바리톤 강형규의 축하송, 가수 강민의 축하공연 등이 이어졌으며, 샌드아트로 100년 기업의 비전을 담아내는 등 다양한 무대를 마련했다. 한편 이날 출정식에는 유정복 안정행정부 장관, 엄기영 경기문화재단 회장,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개그맨 서경석, 탤런트 김보성 등 40여 명의 내빈이 참석해 축하 및 덕담을 통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최신옥 명진고등학교 이사장의 차녀 지수양이 오는 1월 25일(토) 낮 12시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7층 두베홀에서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연락처 : 최신옥 이사장 010-2257-2732)

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이름	회사명/직함	창립기념일
오성호	점보실업 회장	1월 3일
최신옥	명진고등학교 이사장	1월 22일
이승우	나경상사(주) 회장	1월 23일
가재산	조인스HR 대표이사	2월 1일
최중보	파란나라 대표	2월 2일
김창송	성원교역(주) 회장	3월 1일
이상원	미산우드 대표이사	3월 2일
정창현	(주)제이에스엔지니어링 사장	3월 3일
구교근	한미음특허법률(중국투자법률) 대표	3월 5일
이재욱	중앙에프앤에스(주) 대표이사	3월 15일
미상근	협운해운(주) 회장	3월 19일
유재필	유진기업(주) 회장	3월 22일
정우철	(주)일삼 회장	3월 25일
문국현	뉴패러다임 인스티튜트 대표	3월 30일

연구원소식

장만기 본원 회장은 중국 기업인들의 한국경영 벤치마킹을 위한 교육사업 협력을 위해 지난 12월 19일부터 2박 3일간 중국 출장을 다녀왔다. 중국 기업인들의 경영 벤치마킹 교육은 1월 7일부터 11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인간개발연구원 '앱' 출시

본원의 다양한 소식을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태블릿)에서 접할 수 있는 인간개발연구원 '앱'이 출시되었다. '앱'에서는 소식지 <좋은사람 좋은세상>, e메일 뉴스레터, 동영상, 교육소식 등 다양한 소식을 만날 수 있다. 안드로이드폰은 구글스토어에서, 아이폰은 애플스토어에서 '인간개발연구원'을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면 된다.

인간개발연구원 2014 통합멤버십 리뉴얼

39년 역사와 1800회 경영자연구회로 인간의 잠재력 개발에 앞장서 온 인간개발연구원이 2014년을 맞아 새로운 멤버십 제도로 인사드립니다. 사회 이슈 조찬세미나로서 'HDI경영자연구회'를, 기업경영 조찬세미나로 'CEO 지혜산책'을, 문화인문 만찬세미나로 'CEO인문향연'을 구성해 주제, 시간, 지역별 선택이 가능한 맞춤형 멤버십으로 개선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통합 멤버십 운영

HDI경영자연구회(조찬회)	CEO지혜산책(조찬회)	CEO인문향연(만찬회)
매월 첫째 주 목요일 07-09시 소공동 롯데호텔 연 12회 개최	매월 둘째 주 화요일 07-09시 삼성동공향터미널 서울컨벤션 연 12회 개최	매월 넷째 주 목요일 18-21시 삼성동공향터미널 서울컨벤션 연 12회 개최

통합 멤버십 회비

일반개인회원 (1인)	개인실버회원 (1인)	개인골드회원 (1인)
HDI경영자연구회 130만원 CEO지혜산책 130만원 CEO인문향연 180만원	A 경영자연구회+지혜산책 170만원 B 경영자연구회+인문향연 200만원 C 지혜산책+인문향연 200만원	경영자연구회+지혜산책 +인문향연 240만원
일반법인회원 (3인)	법인실버회원 (3인)	법인골드회원 (3인)
HDI경영자연구회 300만원 CEO지혜산책 300만원 CEO인문향연 350만원	A 경영자연구회+지혜산책 400만원 B 경영자연구회+인문향연 400만원 C 지혜산책+인문향연 400만원	경영자연구회+지혜산책 +인문향연 550만원

선납기부회원 3년회비 >> 5년간 멤버십 회원자격 부여 / 5년회비 >> 10년간 멤버십 회원자격 부여

문의 : HDI경영자연구회 (T:02-445-1949) CEO지혜산책 (T:070-4726-3014)
CEO인문향연 (T:070-8670-8431)

교육컨설팅소식

2013년 전국 60여 지자체에서 700여 회 진행 / 아산시 토크 콘서트 개최

2014년 갑오년을 앞두고 지방자치아카데미는 한 해의 대장정을 마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1월 1일 제주에서는 남북한 통합한 의사 1호인 김지은 원장의 드라마틱한 탈북스토리와 대한민국에서의 삶이 주는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11월 14일 부천에서는 SBS '자기야 - 백년손님'에 출연하고 있는 함영병 원장을 모시고 피부노화와 탈모에 관한 강연을 진행했다. 11월 28일 인천 연수구에서는 가수 윤형주 씨를 모시고 음악과 인생을 논하는 자리를 가졌고, 12월 2일 용인시에서는 테너 조용갑 씨를 모시고 도전과 희망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12월 5일 울산 중구에서는 예음예술종합신학교 총장이기도 한 가수 윤항기 씨를 모시고 올해의 마지막 강연을 진행했다.

한편 지난 11월 14일 아산에서는 시민아카데미의 일환으로서 행복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홍렬 씨의 재치있는 사회와 함께 역경을 이겨낸 한국의 폴포츠 최성봉 씨와 행복가정재단의 김병후 이사장을 모시고 희망

과 행복이라는 테마로 감동과 유머, 그리고 음악이 어우러진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또한 2013년 평창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평생학습관계자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며 '동계스포츠 해설사양성과정'을 진행하며 교육의 스펙트럼을 확장했다.

육군, 공군, 합동군사대학 등 총 200회 강연

군부대의 지식학습을 위한 배움의 장으로서 또한 사회적 트렌드 인식과 창조적 발상전환을 위한 장으로 자리 잡은 병영선진화 아카데미가 올해로 7주년을 맞았다. 2006년 5월 육군본부에서 개강한 이래 현재까지 총 200회 강연이 열렸다. 2013년 올 한해도 연초부터 여러 안보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29회가 진행되었다. 7년 전 육군본부에서 시작된 선진육군 아카데미는 본원의 지원을 통해 공군본부의 공군하늘사랑 아카데미와 합동군사대학교의 JFMU아카데미로 파급되는 효과를 얻어냈다. 이를 통해 병영아카데미는 정재계, 문화, 예술의 명사들이 초청되었으며, 경영, 경제, 안보뿐 아니라 문화, 예술, 종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섭렵해왔다. 특히 올해는 정운찬 前 국무총리, 김영수 前 서강대 부총장을 비롯해 박재갑 국립암센터 교수,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배상민 카이스트 교수 등 쟁쟁한 명사들이 연단에 올랐다. 본원은 앞으로도 학습이라는 아카데미 본연의 역할뿐 아니라 군과 민간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2014년 1월
인간개발연구원과 함께
교육전문여행사 행복in투어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세미나 / 학회 / 컨벤션 / 이벤트 / 기업 사원연수 / 국내·외 테마연수 외

처음 시작할때 마음을 잊고
 CEO와 기업을 위한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정성을 담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DI 행복in투어 ☎02)6263-6070

2013 인간개발연구원 정기교육 운영현황

인간개발연구원은 2013년 한 해 동안 약 70개 기관과 함께 총 700여 회의 정기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교육으로 인연을 맺은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3년에도 더욱 좋은 교육으로 평생학습 시대를 선도해나가겠습니다.

공기관	공기관	공기관	공기관	공기관	공기관
공기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지역협력사업단) (제주대학교) (KCTV제주방송) 경기도 장학관	지역특성화사업 주민교육	충남	당진시청	당진아카데미
		서귀포 글로비아카데미		대전시 서구청	서울여자치대학
		제주글로비아카데미		대전시 유성구청	행복 유성아카데미
기업	농협은행 TCC동양 리바트 한국천력 YPP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대학생진로특강	경북	부여군청	굿프래 차치대학
		지철장 교육		서산시청	직원필레특강
		사원부인 교양강좌		아산시청	서산아카데미
		전직원 워크숍		경주시청	아산시민아카데미
		대리점주 워크숍			도곡도서관
		리바트아카데미		고령군청	경주화백포럼
		서울사무소 특강		구미시청	CEO대상 특강
영양마케팅과정	군위군청	군민교양교실			
팔레특강	김천시청	아운아카데미			
전력계통전문가교육		YPP아카데미	군위아카데미		
학교	경북도립대학 공군본부 공군교육사령부 육군본부 육군,해군,공군본부	영사초청 특강	경남	김천시청	월례조회 특강
		문기별 아카데미		대구시 달성구청	김천아카데미
		품질의 달 직원특강		대구시 달성군청	달서행복아카데미
군부대	경북도립대학 공군본부 공군교육사령부 육군본부 육군,해군,공군본부	솔개돌아카데미	전북	울산시 중구청	부부아카데미
		하늘사랑아카데미		대구시 달성군청	실버아카데미
		하늘사랑아카데미		평화군청	달성교양강좌
서울	지차서 (60)	신천육군아카데미	경남	상주시청	상주아카데미
		육해공 합동강연		예산군청	공직자 홍보기법 교육
		경서지식비타민강좌		울산시 중구청	예산아카데미
		광나루아카데미		울산시 동구청	중주문화대학
		종로교양강좌		울진군청	구민교양강좌
		삼버대학원		청도군청	동주주민 평생교육 특강
		중주주민자치아카데미		거창문화원	CS특강
		에코피아 가꿈아카데미		거창문화원	울진아카데미
		에코피아 가꿈 찾아가는 아카데미		거창문화원	싱그린아카데미
		주민자치지원 특강		부산시 금정구청	21c 행복거창아카데미
강화군청	부산시 수영구청	『희망』 외명아카데미			
부천시청	부산시 서구청	금정 아카데미			
부천시 소사구청	창원시 영곡동주민자치센터	수영아카데미			
부천시 오정구청	하동군청	서구미래아카데미			
용인시청	함안군청	주민대상 특강			
인천시 연수구청	함양군청	하동군민자치대학			
경기	강릉시청	강릉비전 중요특강	전남	고흥군청	고흥성공아카데미
		2012 동계올림픽 대비 직원CS 특별연수		광주시 동구청	고흥군 비르개살기협의회 특강
		반부패 청렴실천운동 결의대회			목포시청
		말레니엄 알맹아카데미		무안군청	도곡도서관
		기업지원 특강			장성군청
		베스트 원주아카데미		영암군청	찾아가는 서남권아카데미
		시민문화센터 개강식 특강			영광군청
		원주시 어린이집 교사 및 학부모 특강		함안군청	
		원주시 어린이집 교사 및 학부모 특강			함양군청
		HAPPY700 명칭아카데미		부안군청	
HAPPY700 명칭아카데미 청소년 특강	장성군청	21세기 창성아카데미			
투크콘서트		영광군청			
동계스포츠해설과정					
평생학습관계자 워크숍					
행복중심 수요특강					
홍천아카데미					
말레니엄알맹아카데미					

하루 속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자

비슷한 품질과 겉모양인데도 선진국 제품은 프리미엄이 붙어 비싸게 팔리고, 중후진국 상품은 디스카운트 되어 훨씬 싸게 팔린다. 여행할 나라를 정할 때도 선진국을 선호한다. 자연스레 선진국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더욱 이득을 보게 된다. 국제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부익부 현상이다. 원인은 무엇일까?

'선진국'은 무엇보다 떠오르는 이미지가 좋다. 그래서 가급적 그곳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구매하고 그 나라로 여행을 가고 싶어 한다. 독일제 자동차는 값이 비싸지만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다. 품질이 단단하고 정밀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독일' 또는 '독일사람' 하면 떠오르는 정확하고 튼림없다는 좋은 이미지 때문이다. 프랑스, 영국, 미국 등 다른 선진국도 나름대로 좋은 이미지가 있다.

우리나라 제품은 어떨까? 이제 한국산 제품도 세계적으로 꽤 많이 팔리고 값도 그런대로 괜찮다. 휴대폰과 자동차를 비롯하여 몇몇 분야는 그야말로 세계적이다. 그러나 독일 등 선진국 제품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과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 우리 것에는 품질과 가격의 경쟁력만이 있기 때문이다. '독일 제품' 하면 떠오르는 좋은 이미지를 동반하는 프리미엄 효과가 우리에게 아직 없다. 한국을 잘 모르거나 알고 있더라도 전쟁, 분단국과 같은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세계인이 아직도 상당하다. 이 때문에 오히려 많은 품목에서 디스카운트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디스카운트 되고 있는 우리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려서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공유하고 있는 고품격의 문화 전통과 훌륭한 인물들을 발굴 소개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독일에서 귀화한 이참 사장이 몇 해 전 한 강연장에서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그는 한국인은 참 안타깝다고 말문을 텃다. 세계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더 값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다는 게 그 이유이다. 독일 제품이 높은 가격을 받는 것은 칸트와 괴테 같은 훌륭한 철학자와 문학가를 배출한 나라

에서 만든 상품이라는 플러스 이미지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기가 한국에 와서 대표적 선비인 퇴계 선생에 대해 들여다보니 칸트나 괴테보다 뛰어난 철학자요 인격자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인이 먼저 퇴계 선생과 같이 훌륭한 조상들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고 이를 세계인에 알리면 국격(國格)도 올라가고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 최근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을 통해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깊이 있게 분석한 바 있는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한국명 이만열) 교수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한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제거하고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인에게 한국의 정체성을 알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역설한다. 그러면서 한국적 정체성에 가장 부합하는 상징적 개념으로 '선비정신'을 제시하고 있다.

선비는 학문과 덕성을 겸비한 실천인이다. 높은 식견을 갖추고 타인을 배려하면서 조정과 향촌에서 공동체를 이끌었고, 외세의 침입시에는 강력히 저항하면서 평화적인 국제질서를 지지하는 태도를 견지했다. 이처럼 선비정신에는 한국인뿐 아니라 전 인류가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가 녹아 있다. 이런 선비들의 후손이 만든 제품이 한국 상품이요, 그들이 남긴 문화가 한류의 원천임을 제대로 알린다면 세계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생각할수록 벅찬 느낌이 샘솟는다. ■■■



● 김병일 원장

“정민 교수가 선사하는 깊은 감성의 울림!”

메마른 마음밭에 힘찬 물꼬를 트는 우리 한시 삼백수!

새해 새 마음이 간절한 이들에게 정민 교수가 선사하는 일곱 자의 깊은 울림! 오래된 장처럼 깊은 고전의 감성과 정수가 배어든 우리 한시 삼백수! 삼국부터 근대까지 우리 7언절구 백미를 가려 뽑고 그 아마득하고 빛나는 아름다움을 망라했다. 사랑과 인간, 존재와 자연, 달관과 탄식, 풍자와 해학, 일곱 마디의 좁은 행간 안에 웅장한 성채가 솟았다. 이토록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후련해본 적이 언제였던가? 오래된 나무에 생기가 돌아오듯 메마른 마음밭에 물꼬가 터진다!



7언절구 편
정민
평역
660쪽 | 19,800원

우리 한시 삼백수 황제의 신간

좋은 시를 만나면 기뻐다. 하나하나 찌를 찢어 표시해두었다. 잊어버리고 한 3, 4년을 계속했다. 시는 절제의 언어다. 할 말을 감출수록 빛난다. 소풍날 보물찾기가 이처럼 재미있을까? 몇 글자 안 되는 표현 너머 아마득한 성채가 솟아 있다. 3백수는 《시경 詩經》 3백 편의 남은 뜻을 따르려 함이다. 시삼백은 동양 문화권에서 최고의 앤솔러지란 뜻과 같다. 최고의 걸작만 망라했다는 의미다. 날마다 한 수씩 읽어나가도 휴일을 빼고 나면 근한 해 살림에 가깝다. _머리말 중에서



어디, 새로운 소재 없을까?

소재의 차이가 미래의 차이다

도레이첨단소재는 믿습니다. 소재, 그 무한한 가능성이 활짝 피어난다면,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즐겁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소재, 그 무한한 가능성

'TORAY' 도레이첨단소재

필름 광학용 필름 및 차세대 고기능 필름
섬유 위생용 및 산업용 부직포, 고기능 원사

IT 디스플레이 소재, 반도체 및 전자정보재료 등
친환경 수처리 사업 및 분리막, 생분해성 수지 제품

탄소섬유 산업용 탄소섬유, 탄소섬유 복합재료(CFRP) 등
신재생에너지 2차 전지용 소재 및 태양광 관련소재